

## 역경을 넘어선 승리의 사람들

양인순  
목사

**반** 드시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상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

1996년 4월 16일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. 전 세계에서 선발된 3만 8천명이 레이스에 참가하는 금세기 최고의 마라톤 대회였습니다.

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 케냐의 선수들 7명이 10위 안에 입상을 했다는 것입니다. 월계관은 그 당시 31세였던 모세스 타누이가 차지했습니다. 케냐가 연속 6년 동안 월계관을 독차지한 것입니다.

케냐는 국민 소득 500달러 미만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, 지형상 2천 5백미터에 달하고 고원 지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. 가난해서 고지방 칼로리 섭취를 못하니까 살이 찌 수가 없습니다. 거기다 고지대여서 산소를 섭취하려면 폐활량이 커야 합니다. 군살 한점 없이 쭉 뻗은 몸매에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마라토너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.

전화가 없으니까 달리고 뛰어가 소식을 전해야 하고, 자동차가 없으니까 매일 수 km에서 많게는 수십 km를 달려야 합니다. 이러한 케냐의 천연적 약조건이

세계 마라톤을 석권하게 해준 것입니다.

1960년 로마 올림픽 여자 100m, 200m, 그리고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월마라는 여자 선수였습니다.

월마는 태어난 지 네 살 되던 해 폐렴에 걸려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월마를 데리고 한 걸음씩 걷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. 7년 뒤인 11세 되는 해 월마는 목발을 집어 던지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, 고등학교 때는 농구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그 뒤 본격적으로 육상을 시작, 세계 육상의 최고 선수가 되었습니다.

로마 올림픽 3관왕이 된 다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은 어머니의 “한 걸음만 더”라는 격려와 용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걷지도 못하던 소녀가 세계 육상 3관왕이 된 것입니다.

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. 본래 그는 바이올린 연주가였는데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연주곡 전체를 암송했습니다. 어느 날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일이 생겨 대신할 지휘자를 찾다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가 발탁돼 일약 세계적인 지휘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. 그의 악조건과 성실성이 성공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.

헬라의 유명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말더듬이였습니다. 그러나 그는 그 약조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.

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던 탓으로 신체 장애자였습니다. 그러나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.

우리는 둘 중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약점과 약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그것들 앞에 무릎 꿇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

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☺